

바르게 배우는 교회•행하는 교회•전하는 바로 그 교회

제42권 33호

2026.8.16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짧은 글 깊은 생각

요한복음 8장 31-36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죄의 종 된 인간을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동안 주권과 말과 이름과 신앙의 자유까지 빼앗겼지만, 3·1운동과 신사참배 거부 역사의 속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광복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백성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남의 종 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로마보다 더 무서운 죄와 종교적 형식과 욕망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돈, 명예, 쾌락, 잘못된 사상, 습관에 붙들려 살면서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참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런 자유는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는 진리를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신호등이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지키듯, 하나님의 말씀은 속박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의 길입니다. 새가 하늘에서, 물고기가 바다에서, 기차가 철로 위에서 자유롭듯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는 윤리적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9시30 3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다 갈 이
경배찬송	1장	다 갈 이
성서교독	45번 시103편	다 갈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38장	다 갈 이
기 도		1부 최민관목사 2부 송춘자권사 3부 조철한집사
성경봉독	잠언4:23	인 도 자
찬 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성 가 대
설 교	마음의 비밀	박근상목사
기 도		인 도 자
찬 송	365장	다 갈 이
헌금봉헌	헌금함예	다 갈 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갈 이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 금주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4:23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천영순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기도의 무기(6) 엡6:18-19
찬송/ 212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에스겔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 매일 에스겔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 주보에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운명을 어떻게 되는가' 나갑니다.
- 삼일예배에 "기도의 무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 모임
수- 교회신보 1000호 편집회의(신문사) .

밤기도회 금요일8시

신석주간기도

- 오직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예배와 섬김, 일치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교회 다음세대 사역에 부흥이 임할 수 있게 하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역에 더 충만한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치료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이길연 김실근 2층 최정선 이화옥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최민관 송춘자 조철한	윤준영/생일감사
다음주	1층 김장옥 오종수 2층 최정선 이화옥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오종화 이효정 태영성	류수현/자녀감사

청소담당:2,3층 이번주(08,21) 6구역(김춘자)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08,28) 7구역(김순자)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시 91편 11절 제 목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은 엘리사	활동 1.8월 암송 말씀은 빌 4장 4절입니다. 2.오늘의 활동은 24시간 보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송춘자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시 91편 11절 제 목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은 엘리사	1.8월 암송 말씀은 빌 4장 4절입니다. 2.매일 성경큐티와 성경 읽기 열심히 하기 3.안전하고 건강한 방학 보내기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사회자 -김형섭 형제 기도자 -백가은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출애굽기 19장 3~6절 제 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1.8월 성경읽기는 요한복음, 암송말씀은 요한복음 23~24절입니다. 2.8/23(주일) 예배인도 김형섭 형제, 대표기도 서예성 형제, ppt오한금채 자매입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사회자 -김금모 형제 기도자 -한현구 형제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역대상 7장 12~15절 제 목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1.8/15(토) 10시 교회봉사 후 11시 사도행전 3장 말씀읽기, 나눔, 기도회합니다. 2.8/23(주) 디표기도 한현진 자매입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9시 30 3부 오전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영유아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인생 질문에 대한 답변(22)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운명은 인간이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깊고도 엄숙한 문제입니다.

성경과 교회 전통이 붙드는 중심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교회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는 여러 구원자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십자가 복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함이나 종교적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 집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시대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해 왔습니다. (행 16:31, 행 4:12, 딤후 2:5-6)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소수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최종 운명은 인간의 판단으로 서둘러 판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속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확실성을 붙들되,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좁은 판단 안에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딤후 2:4, 딤후 2:11, 벰후 3:9, 요 3:16, 고후 5:19)

이 문제를 두고 교회는 크게 세 관점을 말해 왔습니다.

배타주의

예수를 명시적으로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며, 성경의 엄중한 경고와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강하게 붙들니다.

포괄주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지만, 그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원주의

여러 종교가 각기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성경의 중심 증언을 약화시키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원주의처럼 복음의 절대성을 내려놓지 않고, 배타주의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넓이를 인간이 달아 버리지도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붙들고 겸손히 소망해야 합니다. (요 14:6, 롬 1:18-20, 롬 2:14-16, 요 1:1-14)

성경은 심판의 실재도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으며, 마지막 날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믿음의 길을 거부한 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구원과 멸망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고, 지금 생명의 길로 들어오라고 선포합니다. 복음 전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용서와 새 창조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 7:13-14, 마 25:31-46, 막 9:45-48, 눅 16:19-31, 마 28:18-20)

성경은 심판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해될 것을 바라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 줍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두시고, 하나님은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끝은 혼돈이나 어둠의 승리가 아닙니다. 어린양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행 3:21, 엡 1:9-10, 골 1:20, 고전 15:22, 빌 2:10-11, 고전 15:25-28)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다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판단보다 크다는 소망입니다.

만인 구원을 교리처럼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만민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거부는 실제적이고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은 더 깊고 크며 영원합니다. 한 사람의 최종 운명은 인간의 계산이나 교회의 판정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되, 절망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롬 11:33-36, 엡 2:8-9, 딛 3:5)

이 믿음은 교회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자기만 옳다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집단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신념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중이 복음의 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대화는 자기 신앙을 버릴 때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도 겸손히 들을 때 가능해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신비롭게 역사하는지 인간이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벧전 3:15-16, 골 4:5-6)

결국 교회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교회는 그 이름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며, 마지막 날에는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작아 보여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막혀 보여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 교회는 자기 힘의 승리가 아니라 어린양의 은혜로 승리한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행 1:8, 계 21:1-5, 계 11:15)

나눔식 소그룹 에스겔 43:1~12(8월 19일 본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 찬양하기 *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새 288)

Focus :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에스겔 43:1~12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이스라엘의 반복된 악행은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문 위에 머물렀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10:18~19; 11:23).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 파괴와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이후 새 성전에 다시 임하시는 영광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 주십니다(43:1~4).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동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관찰과 묵상

1. 새 성전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6~9절)
2.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스겔이 보여 알게 할 것과 지켜 행하게 할 것은 무엇인가요?(10~11절)

적용과 나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된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부끄럽게 여기고 버릴 죄악은 무엇인가요?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죄가 가득한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단지 후회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립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저의 모든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며 토설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가다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집은 가정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소중한 터전입니다. 집이 개인의 물욕을 채우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이루는 공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2. 유럽에서 의료적 조력 자살 합법화 시도가 무산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와 의료 종사자들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뜻대로 생명의 존엄을 지키도록 기도합니다.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으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전하는 그 교회가 영구표어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 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6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박근상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윤태영

시무장로: 김일남 박헌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박성훈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남기성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